



한일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Chol Sik Chong, Publisher
Byung K. Suh, Editor

VOL.9 No.3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rch 1980



⇒ 船遊圖 (申潤福)
Genre Scene (Sin Yun-bok)

인구조사 (CENSUS) 참여는 교포 권의 보장한다!!

김 목공소

주소 3825 191st S.W
Lynnwood WA 98036
전화 771-8019



신축, 증축, 개축 공사
지붕수리
타이루
카펫트
호마이카
가비넷
배관
일차 **특별요금** 받아 보시면
곧 알수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과 미국에서 20년의 건축공사
경험이 있으며 성실과 신용으로 시공하며
추호의 불신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곧, 전화 771-8019 전화주십시오"

그랜드 식품

"본점"
Woong Ki Baik
8512 20th N.E.
Seattle, Wash. 98115
206-525-8334

Dan & Jean Kim
5405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206-771-7226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함 봉사

나 날이 발전하는 시에들 보면 여러분 속에. 저의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맛을 성심껏 전해드려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하옵니다.
갈비와 불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합니다."

인삼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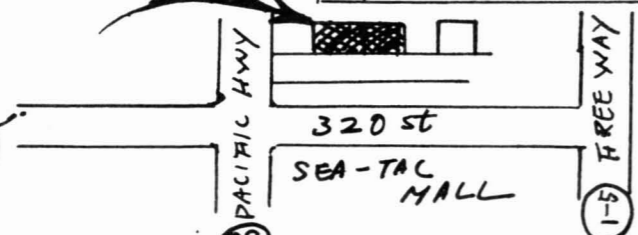


Seattle과 Tacoma 중간에 위치한
FEDERAL WAY 웨드럴 웨이
다정한

아줌마 식품

깨끗하게 고루 갖춘 한국 식품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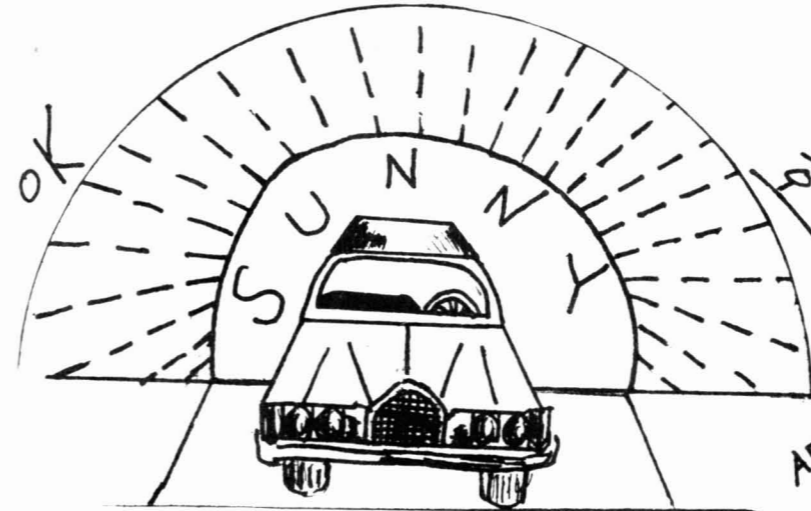
전화 941-1123
* 영업시간 원-목 104-8시
* 토 10시-9시



맛난 밑반찬, 각종절임, 신선한생선, 야채, 각종전차, 떡, 불고기
갈비, 한국약품, 선물용품 (커피선물용, 가정장식용) 일체

31812 PACIFIC HIGHWAY SO
FEDERAL WAY, WA. 98003

SUNNY'S BODY





이모 저모 여러 형태로 차고치기를 주저 하십니까?
한번 왕림해주셔서 SUNNY 감을 찾아주시면
즉시 즉결 어려운 문제점을 사막의 냉수처럼
탁 트이든 시원함을 약속 드립니다.

(자동차 바디수리 10x10%)
(자동차 페인트 10x10%)

TEL: DAY 725-5708
NIGHT 784-5407
주소: 5716 RAINIER AVES
SEATTLE WA

FARMER'S INSURANCE GROUP

정문연
GOOD STUDENT DISCOUNTS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NON-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사무실 : 522-9494
집 : 523-8944

155 N.E. 100th Suite 403 Seattle, Wa 98125

렌리장 여행사.

여행 전문 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판매.
가격 저렴 및 재반속.
대 령.



재정 보충서 작성.
공공업무.

523-7057
523-2781

SONG'S House Paints co.

무 료 견 적


집 아파트, 가게, 사무실, 교회, 학교, 기타.

* 4~5월은 오픈 기념으로 특별 봉사 합니다.

전화 사무실 525-7680
집 762-5364

최선의 세계인. —이한빈—

재미고포들에게 드리는 새해 메시지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해외고포의 수가 백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본어 60만, 북미주에 30만, 동남아·남미·중동 등 지역 10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합니다. 참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구 3천 5백만의 3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인구비례로 가장 많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스위스의 5퍼센트의 경우를 쳐다보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이조시대의 실학자 정약산 선생은 "반도가 너무 좁다"고 갈파 하셨다고 하는데 마침내 우리 민족이 20세기 말엽에 와서 비로소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하게 된것을 대단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발전하는 민족은 시간적으로 리택을 지향하고 공간적으로 밖으로 신장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타일의 시조들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때 이집트로 내려가 수백년 사는동안에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고 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억울함에 부딪치게 될것입니다. 아니 벌써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타일 백성들도 늘 조상들에게 약속이었던 가나안 땅을 그리고 마침내는 그곳을 향하여 민족의 탈출까지 행해왔던 것입니다. 여러 동포들께서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마음에는 용맹에도 고국을 잊지 못하실줄 믿읍니다. 그것은 근본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는 동해물과 . . . 가 제 1의 애국가라면 나의 삼던 고향이 제 2의 애국가고 가고파가 제3의 애국가 일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언어가 가고 색채를 맞이하게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고향을 향하여 쏠리고 있을것입니다. 이 어찌 순수한 녀심의 동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빈 마음을 가질때 우리는 적극적인 것으로 그것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승경에도 마음이 가난한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이 말에는 함축이 많읍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이 누구나 알아주는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미로 가나 고유의 것과 특색을 가져야 대접을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자기의 특색이 없는 인간은 큰 기계에 쏠려있는 나사못과 같이 이용 가치는 있어도 보람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속에서는 자기를 내세울수 있는 사람만이 값 있는 사람이 될것입니다. 최선의 세계인이 되려면 먼저 최선의 한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기를 재발견하는 해가 되자고 제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국을 다시 꽃피게 해보십시오. 그 방법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고국과 단 한가지라도 무엇이든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사업상의 관계도 좋습니다. 어떤 학교나 교회나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물론 어떤 개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욱 필요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개인적이고 정감적인 관계속에 보람이 있는것입니다. 이런 작은것이 거기가 되어 여러분 생활에는 활기가 감들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자기표현의 향기일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주변에서 이런 향기를 발산할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국이 피어날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국이 다시 피어날것에 여러분의 말씨와 행동에서 온전한 자기가 표현될것입니다. 그런것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참된 세계인으로 존경하게 될것입니다. 1989년이 해외에 계신 여러분에게 자기를 재표현하고 한국을 되살리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 부총리 겸 경제 기획원 장관

남의 나라 땅
돌아다 보이는 부끄러움
입술에 맺어
건너 서서
숨그리고 말 놓는
남의 나라 땅



소원

· 신 장 개 업 ·

활인대매출중

현대식품점

한글학교 개강식 및 영화감상회

XX

본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80년도 한글학교 개강식 및 영화감상회를 대안과 같이 실시할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성원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1. 한글학교 개강식

- 가) 일시: 1980년 4월 19일 오후 1시.
- 나) 장소: 웨스트 시애틀 하이랜드 파크 차터학교 (약도참조)
- 다) 목적: 새 학년의 정서에 어울리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추 높은 현대인을 육성한다.
- 라) 교과과목: 국어, 역사, 음악, 라틴도, 기타.

2. 영화 감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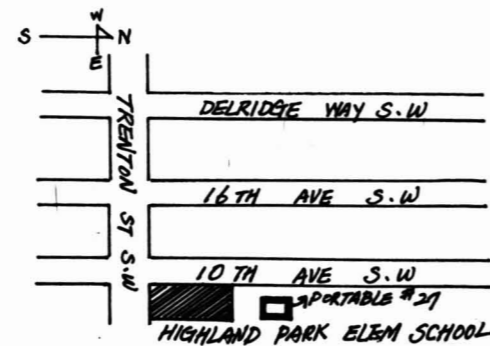
- 가) 제목: 푸른 교향 (홍천연의 시네마스코프 영아시약해설)
- 나) 참가비: 활인 3불 (참가비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13세 미만은 무료이며 본 영화는 한인회에서 교포 어린이들의 자선과 후원자들에게 자선하게 관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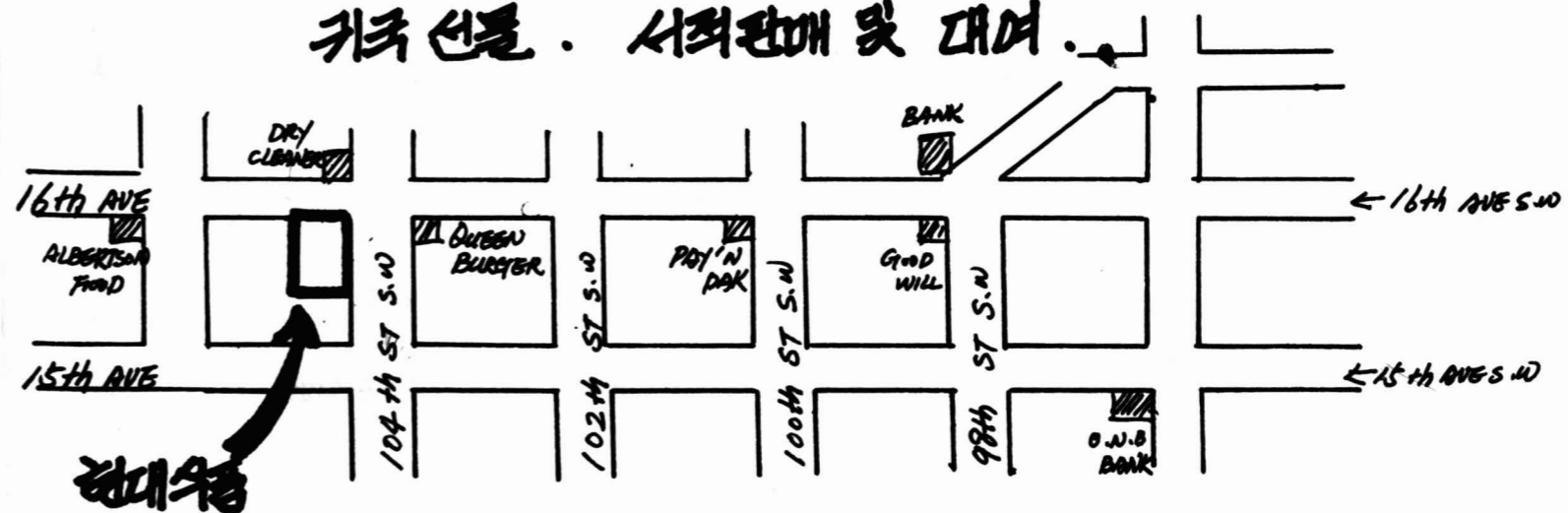
1980년 3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주소: 1012 S.W TRENTON SEATTLE WA 98106
전화: 589-5530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애틀 S.W 지역 화이트 센터에 현대식품점을 신장
개업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저희는
친절과 봉사로서 성실한 교민 여러분을 도울것을 약속드립니다.
꼭 한번 찾아주세요. 전화: 762-4792.
(년중 무휴 아침 9시 ~ 저녁 9시) 대안: 조 건기 배양.
---: 취급 품목: ---
한국 각종 식품 (간식 및 다량품 및 반찬), 미국식품, 일본식품,
키친 선물, 시의판매 및 대여.



"제 61회 삼일절 기념식" 에서

지난 3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주관
한 3.1절 기념행사에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역사상 약 600여명의
최대의 고포가 참석하여 61년전의 민족의 상환했던 기미인 3월 1일을
기념하는 뜻깊은 기념식은 씨애틀 북쪽 41가와 워싱턴 애브뉴에
위치한 해립주니어 하이스쿨에서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식순에 따라 노순업 부회장의 개회사후 국기에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봉창후에 씨애틀 지역의 연로되시는 박암 선생님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이어 송영사관의 박 남근 영사께서 대독한 최규하
대통령 국어의 3.1절 기념사에서 "돌변하는 세계급 정세속에서 우리는
3.1절의 숭고하고 고귀한 독립정신 이념을 계속 이어 받아 조국의
부흥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할것이며 지금의 국내정세는 우리
모두가 총괄 단결하여야 할때"이라고 강조하시었으며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 정철식회장의 인사 말씀과 마코마 지역 유지 홍 현갑 선생님의
축사에 이어 삼일절 노래, 만세삼창의 식순이 계속 되었다.
특히 이날 만세삼창에는 박암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600여 고포의
우렁찬 만세삼창에는 조국을 떠나 미국만리 미국땅에서 61년전의
3월 1일 기념하는 자리에 억누를수 없는 조국을 향한 애향심에 모두들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참석하신 분들은 지역고포, 유지 및 약대
한인회장께서도 참석하셨다. 기념식에 이어 본 한인회에서는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먼저 카미리 대통령의 한국방문 기록영화(4본)
후 간단한 간식들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원근 국서의 지역에서
살면서도 그 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여러 고포들과의 반갑고 즐거운
담소의 시간이 되었었고 연이어 한국 최우수 극영화 "집념"(상영시간
2시간 30분)을 상영하여 600여 고포들로부터 박수 감탄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들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경품추첨(만 55세 이상
의 할머니, 할아버지)에는 한인회장상 및 14개 품목의 경품으로 씨애틀
지역 각 한인 10개 업체에서 경품들을 제공하였으며 이제까지 고포를
떠나 미국땅에서 고생하시는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드렸다. 이날 장장 5시간에 걸친 1부(기념식) 2부(영화감상회)
3부(간식) 및 4부(경품추첨)등의 기념식 및 부속행사에서 고포 상호간의
친선을 더욱 밀접하게 가져 퍼부로서 느낄수 있었으며 조국을 떠나
미국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3.1절의 독립정신을 이어 받아
특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는 한민족의 부흥한 민족애와 결속력을 백양
시켜야하며 어느곳에서도 근면과 성실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기사 제공 한인회총무 이동규

1980년 3.1절 기념 행사시

안내 맡아 수고 하신분

김문기 정순화 김상욱 배현미 황금희 이선출 이선주
(Chief Seattle High School) (Shoreline D.C High School)

변화 산상의 사건이 주는 고훈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 마가 복음 9장 1절-13절



한인 선교 교회 담임 송 천호 목사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마르 산에 올라 가사 저희 앞에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앉으시는 찬란한 광채가 나고 그 옷은 표백세탁이상이므로 흰 옷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제자는 이 광경에 신비한 체험으로 어안이 병병해 있는데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주여 우리가 여기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말하였을 때 곧 구름이 저희를 덮으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는 음성이 들렸 습니다. 그 때를 들어 돌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서 계시고 자기들만 주의 발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광경과 말씀중에서 백위야할 중대한 고훈을 찾아보고 저합니다. 첫째로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구속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는 확실하고 선명한 증거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대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로 구속사역을 이루 하셨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실수한 모습으로는 베드로는 부지불식간에 그만 그 산위에 머물자고

신비주의만이 족하다고 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내력가자 현실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또 현실극위에만 굴복하자 마르 산에서 기도하자고 권하시는 작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은 주님이십니다. 또 초막 셋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나란히 짓자고 생각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주님의 초막과 모세 엘리야의 초막을 나란히 지으려는 때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발언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자 일본입니다. 사환에 불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실수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말씀만 들 으라" 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돌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곳이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그들앞에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언도, 교파도, 초막같은 교회도, 교회의 신학도 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증거자일뿐 그리스도와는 나란히 설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복음의 다이얼
941-7877, 922-9266
(세아지역) (타코마지역)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시든지 전화교회 복음의 다이얼을 들립니다

○ 외로울때 ○ 피곤할때 ○ 감금할때
○ 잠들기전 ○ 일어나서 ○ 쉬는 시간에

설교자: 한인선교교회 송 천호 목사
Korean Mission Church, Dr. B. Song
(206) 922-1611, 838-4599

복음의 다이얼 방송실역서 고난기간 부흥집회를 저명한 부흥사 경 영문 목사님을 모시고 3월 27일(목요일)-30일(일요일) 저녁 7시반에 테이크우드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소 : 6900 Steilacoom Blvd S.W.
전화 : 922-1611

<견집후기>

꽃바람이 불렀으니 봄은 어김없이 찾아 왔나 봄니카.

여기저기 세월의 역겨움 속에서도 좌절 하지 않고 전부의 복받은 이지역 피안의 환기란 모험들은 눈여겨 볼수 있는 반가움이 큼니다.

3월 회보는 마감하기 위하여 심신은 아끼지 않는 회장님, 총무님, Mrs. 조, Mrs. 김 그리고 잊지 않고 투고 해주신 여러분 들의 정성이 대한 보답은 보다 나은 양질의 "회보"를 만드는데 있을줄 믿습니다.

대화의 광장이 여기에 리플터 놓고 뛰노는 어린 사슴들 되길 바랍니다

- 편집부 -

한글 학교 학생모집

입학원서

이름	한글 영문			사 진
주소				
성년월일		성별	남여	
보호자	한글 영문	전화		취업
학원의 특기 취미				
기타 요망 사항				
위와 같이 입학원서를 제출하시고 하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월 일 보호자 _____ 씨애를 한글학교장 귀하				

- 백경숙 한글 학교장 프로필
- 1. 수도여고 졸(서울)
 - 1. 숙명 여대 가정과 1년 수료
 - 1. Centro Escolar University 에서 장학금으로 교육과 수료(마닐라, 필리핀)
 - 1. 도림 여중(서울) 영어, 수학 교편
 - 1. 1970년 도미
 - 1. U.W 교육학 석사 과정 수료
 - 1. Kent School District 에서 3년 교편
 - 1. 교육청 근무(4년 현재)

- 1. 본교의 사명**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 해가는 기반으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국인을 육성하여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하여 조국을 건설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 2. 본교의 교육 목적**
애국 애족의 정신에 투철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금치 높은 한국인을 육성한다.
 - 3. 본교를 수료하면**
 1. 이중 언어와 문화를 체득하여 높은 사고력을 갖는다.
 2. 가족과 대화가 넓어지고 부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3. 우리가 훌륭한 문화민족임을 자부하게 되어 엄중의식을 얻는다.
 - 4. 학생모집 내용**
 1. 모집대상 : 유치반 및 국민학교 전 학년.
 2.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3. 등록일시 : 수시 등록 받음 (오전 9:00-오후 4:30)
 4. 등록장소 : 한인회 사무실
 5. 교과과목 : 국어, 음악, 역사, 태권도.
 6. 등록금 :
 - 가. 한가정 1인 학생 \$25.00
 - 나. 한가정 2인 학생 \$35.00
 - 다. 한가정 3인 이상 학생 \$40.00
 7.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9:00-12:30
 8. 학교위치 : Highland Park Elementary School 1012 S.W. Trenton Seattle, Wa 98106
 9. 기타 : 본교에 대한 본의 사랑이 있으면 한인회 사무실 (767-7934) 이나 한인회 회장택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244-8449, 763-9190)
- 본교는 씨애를 한인회에서 설립한 학교로서 본국정부의 많은 협조를 받고 있으며 완전한 시청각 교재 고구로 수업을 합니다.

1980년 3월
씨애를 한인회 산하 한글학교장 백경숙



80년도 체육 활동에 관한 소견

본 경마회는 고민 여백은 안녕하십니까?

체육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체육은 개인의 능력이며,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본래의 재산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정신도 건강해 집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면 만사가 어찌든 일일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루하루의 입과가 피곤하고 고달픈 생활일지라도, 하루의 계획표를 세워 점도있는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우리 모두 실천해 봅시다. 새벽에 일찍 기상해서

10분이고, 15분이고 맨손체조도 해보고, 팔굽혀펴기도 해보고, 조깅(가벼운 뛸뛰기)도 즐겨 보십시오. 운동에서 기운이 생겼을 것입니다.

흔한 말중에 '덧은 나는 것이고, 땀은 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고민 모두 실천해 봅시다.

간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문을 말씀드리면

체육을 취실분주 한인회에는 연맹행사도 마도시와의 축구시합이 3번 있습니다. 79년도에는 두 번 우승을 해서 우승권이 한인회 사무실에 빛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번 모두 우승을 거두어야겠습니다.

우리 체육을 취실분주 고민의 입을 곡식할 줄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민 여백의 연조 없이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평소 축구에 관심 있으신분과, 소집이 있으신분의 연약을 바랍니다. 또한 체육활동에 좋은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본 한인회에서는 체육을 취실분주 고민의 운동회를 구상중이 있습니다. 어떤이에게 몸을 심어주고 어떤이에게는 학창시절의 낭만을 회상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대학의 장소가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의를 갖고 개인 선배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한인회 사무실 767-7934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25-1178

체육 부장 이 덕 기

한인회 지원 현황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이 순복 \$50.00	김 진수 \$15.00	최 금순 \$15.00
엄 영보 \$20.00	한 승희 \$15.00	조 성옥 \$30.00
유 인종 \$20.00	박 성은 \$15.00	이 영주 \$20.00
황 장호 \$15.00	조 진기 \$15.00	김 태 \$15.00
정 순영 \$15.00	유 백은 \$15.00	박 영식 \$15.00
권 수은 \$15.00	김 경애 \$15.00	김 학남 \$15.00
고 광은 \$15.00	Song U. Yu \$15.00	장 현수 \$15.00
Chun Mae Auckland \$20.00		합계 \$400.00

한인회관 건립 기금 기부자 명단

이 안 빈(부흥회 겸 경제 기획원 장관) \$1,000.00
한 만 선 박사 \$700.00
정 철 식 한인회장 \$150.00
윤 선 옥 \$5.00
3.1 절 기념행사 모금함 \$35.00
합계 \$1,290.00

교육 기금

남 상 영 \$25.00
합계 \$25.00

광고비

정 용 기 \$50.00
김 덕 진 \$30.00
이 영 주 \$50.00
합계 \$130.00

3.1 절 기념 행사 특별 찬조자

김 김 방 \$240.00	김 무 영 \$50.00
김 무 영 \$10.00	정 영 식 \$5.00
이 영 주 \$30.00	윤 완 김 \$10.00
노 순 영 \$75.00	김 복 김 \$10.00
	합계 \$430.00

데단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회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해 주 한인연소예 모금함을 설치 하였습니다.

설치연소-----중앙식물 현대식물 오대양식물 한국식당 그랜트식물

아름마 마텔 동양식물.

이모금하여는 건립기금의 제반기금 또는 한인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도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부부장 이 광 술

3.1 절 행사 지원금 및 개인 기부명단

- 1). 차재표구사(방화 방비 콘서트)
- 2). 그랜드스쿨(철거. 컨셉콘서트 간담회)
- 3). 동양식당(오찬 대접)
- 4). 현대집(철거 1개)
- 5). 태화리(사립 20대)
- 6). 현대식당(철거 50파운드)
- 7). 김관영씨(T.V 현대)
- 8). 오대양식당(리본 3박스)
- 9). 1.2.3사립(철거 50파운드)
- 10). 현대식당(모은 방화 1개)
- 11). 김우영씨(DISA회 부가사): 용모수(50년)

지난 상연된 행사를 위해 한인회에 제공해 주신 성원과 기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후원 바랍니다. 한 인 회

말(言語)의 선택

국제화란(표구사) 과 상 영

내가 알기로는 세월을 비롯하여 인간 바로마에 많은 우리 동포가 살고있는것으로 압니다. 동포들간의 생활상은 옛 생각을 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 만큼 그렇게 자유 스텝이 되는것을 종종 볼수 있지요. 남이 잘 사는것도, 남이 잘하는것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말에서 나오는것입니다.

그때도 다른 아시아인 보다는 잘났지하는금지를 가지고 낯선 이 큰 땅을 좀다하고 활보하는 우리동포, 정말 용감하고 어깨가 으쓱하지않을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볼점은 많음니다. 감부 좋아하고 장난해 잡하고 풍채가 힘이 드다는 것을 압면서도 실천 못하는 모두 과자가 반성해야 할일들입니다. 그렇다고 꼭 말만을 못하고 욕 기피를 놓치는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옛금언에 말을 잘하면 "은" (銀) 말을 하지 않으면 "금" (金) 이란 말도 있듯이 말(言語)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말을 못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생각만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 어느곳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저지될수 없는 인종이 어엿 하게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영어자들은 말을 못하는 대신에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의사교환을 능숙하게 하고있다고 하니 이쯤되면 굳이 말을 할줄 아는것이 덕견스러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말을 함으로서 좀 지못한 이빨을 들어내놓게되고 또한 범포

항기름 지못한 냄새도 생각해야하겠고 가끔 의센스에 딱딱 이쁜 얼굴이 얼굴 어집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言語)을 할줄 알고 말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는만큼 편히하고 자연 스텝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할줄 아는것이 얼마나 요행스런고 행복스러운일이라는것을 새삼 느끼게 하지요. 그러나 말을 할줄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행복하다고 볼수는 없는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그 자체 보다는 연구

많은 말 가운데서 어떠한 말을 골라서 하느냐 하는데보다 인간적인 포가 있으며 말의 의미(意義)가 숨어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되지도 않은말, 사실도 아닌말, 거짓은 말을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이 한다고해서 말을 잘한다거나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할수 없을것입니다. 한마디말을 깨달 다들듯 차근차근 골라서 그것도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해준 사람의 인품을 생각하며 뇌이는데

포미가 있고 이렇게해도 깊어지도록 겨우 "은" (銀) 밖에 되지 않은것입니다. 많은 말로 입으로부터의 배설물(排泄物)은 아닌것입니다. 많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격을 들어내는 무형(無形)의 상징(象徵)입니다.

고운 말; 아름다운말, 착한말, 미더운 말, 이런말을 들을때 들는 사람의 수마(手馬)를 가릴것 없이 유쾌하고 흐뭇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바로 언어(言語)가 마음의 표상(表象)이고 인간적 향기(香氣)를 풍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됩니다.

가난한 자의 집은 넓은 데 지 않습니다.

어떤 미백의 수정의 조각이 떨어지는 가운데 어떤 빛나는 것은 빛나며 또 어떤것은 어둠기도 합니다.

마곳견의 따스한 그리고

가난 처럼 가난하지만 저녁놀을 맞이하여 일제 새 세기로 변하여 모든것들이 거기서부터 빛나게 됩니다.



부동산 MacPherson's Inc., Realtors



盧 舜 烈 REALTORS - DEVELOPERS SOON Y. ROW

7901 - 35th Avenue S.W. Seattle, Washington 98126

집: 774-7977 763-0341 사무실: 937-9700

CHAMPION TAVERN & APARTMENTS

12129 Pacific Hwy S.W. Tacoma, WA. 98499

Y.S. PAK Owner

Ph. 582-2890

Dancing Pool Billiard Pin Ball Foos Ball

한국의 통가수

남진쇼

공연기간: 4월 8일 ~ 13일 (6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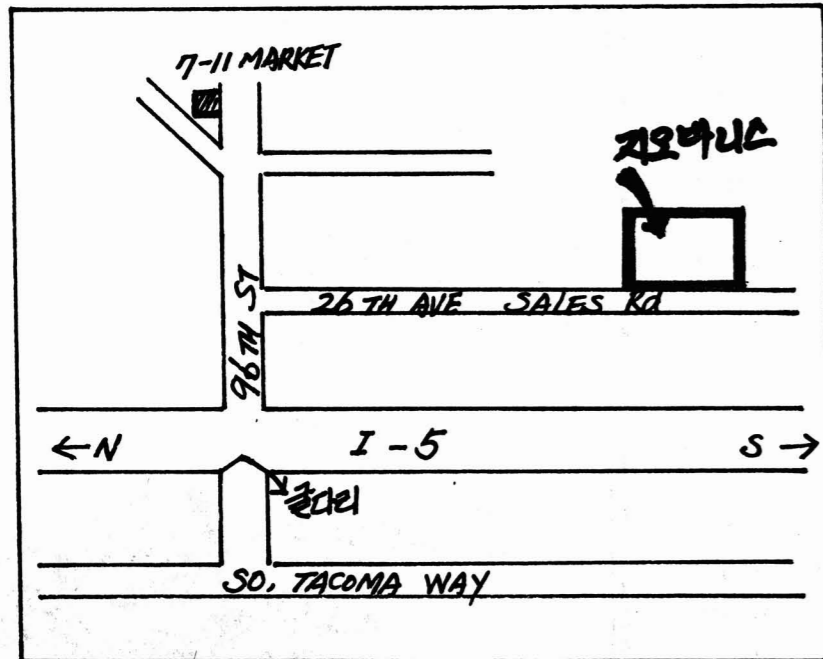
여러분의 사교장

시오바니스 나이트클럽

새 봄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원속에 하루하루 시오바니스 나이트 클럽은 날로 여러분의 사교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다시 인기 통가수 남진쇼를 모시고 여러분의 성원이 보답코저 하오니 바쁘신 중일지라도 가족동반 하셔서 부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경시 중화요리
수타쿠수 전문
가동 안주 일체
단체연회식원비
(200석)

나이트클럽.
중화요리.
시오바니스

예약전화 582~9889,
581~0382.

공지사항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ATTLE

시애틀 한인 회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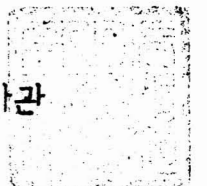
80년도 재미 고포 학생을 위한 하계 학교가 80. 6. 22 부터 2주간 서울에서 개최되며, 주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4명의 학생을 다음 요강에 따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귀 한인회 관내 거주 한인 자녀중, 미국 고등학교 11학년 및 12학년 재학생으로서, 하계 학교 참가 희망 학생이 있으면, 벌히 지원서를 작성하여 80. 3. 31 까지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봉 :
1. 하계 학교 학생 선발요강 1봉.
 2. 제 8회(1980년) 재미 한국 학생 하계 학교 안내서 및 지원서 2봉.

1980. 2. 22

주 시애틀 총영사관



1. 지업학생 이름 (한글) _____ (한문) _____
(영문) _____
2. 생년월일 : _____ 성별 : 남 () 여 ()
(Mon.) (Date) (Year)
3. 현 주소 : _____
_____ (전화번호) ()
Area Code
4. 다니는 학교 : _____ 학년 : _____ 학년 (80.1. 현재)
5. 출생지 : _____ Status: 미국시민 () 영주권소지 () 기라 ()
6. 미국거주년수 : _____ 년 하계학교 경험 : 유 () 무 ()
듣기: _____ 말하기: _____ 쓰기: _____
7. 한국어 이해능력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8. 건강상태 : good () fair () Poor () _____
Specity
9. 같이갈 사람 : _____ 성명 _____ 관계 _____
10. 보호자 이름 : (한글) _____ (영문) _____
(연락처) : (주소) _____ (전화) _____
(직업) 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
11. 국내연고자 성명 : (한글) _____ (한문) _____
주소 : 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 (전화번호) _____
- 12 서명 : _____ 지업학생 _____ 보호자 _____

Photo
사진 1매

1980. . . .

고포들에게 부치는 바램

영제어! 동포어!

여기 한자무 망치를 손에든 젊은이가 부르짖는 바램을 어찌그리
수수 방관하기란 말이요. 우연과 요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아득한 옛날이야기 오늘날에 없어져야할 단어들이되다.

차거운 이땅, 이민의 이땅에 부족한 나의 바램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줄필을 대신한다.
반만년 역사의 속은 무수한 희비와 우여와 극절로 심없는 경쟁과
아우성으로 1980년대에 이르렀다.

종교 낙움을 가르기 이전에 한반도의 국민은 모질고 뼈아프고 쓰라린
고통을 발판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어왔고 또 지금 순간 이어간다.
심토 광위의 수많은 인간들의 욕망은 변화 무쌍하고 생각의 깊은
천차 만별이고 끝없는 정찰과 시기와 그것도 아니면 돌아선 저주로
죽업에 이룬진대 단군의 후예들이여 전자의 글을 떠나 후기를 배
나소서 따르소서 바램이어

자! 그러면, 오늘에 사는 우리는 종교 낙움을 가르기엔 충분한
지식과 역사의 바탕과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후배를 가려 현실에
박해할수있는 삶을 구가 할때이다. 유명한 프랑스의 나포 태움의
바램은 멕시코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했었지만 퍼허화 된 모스크 바와
텍스 그라드에서의 쓰라림으로 전쟁의 고아가 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야 말로 치밀한 작전계획의 부족임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크는 오로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것을 부하들에게 강요만
했음뿐 우매한 부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철한 판단과 예리한 부시를 겸비해서 이민의 고아
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나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많은
어려움에 숨쉬기조차 기록할때도 허다하다.

바듯한 직장수입에서 본 백년 식생활과 교육! 만리장성 힘겨운
언어의 장벽! 이해하기 힘든 미국땅의 풍습과 이모저모를 극복
하기엔 너무도 앓는 심정! 그러나 우리들은 줄기찬 인내와 성실
잡살아 보겠다는 부단한 노력의 입념으로 파란눈 코코 사람못지
않게산다. 또, 그러나 인내와 성실과 부단한 노력의 입념만으로 이
세상을 살기엔 결코 부족한 우리의 삶에 아랫의 글을 가미시킨다면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 유명한 철학가나 사상가들이 부르짖은 절규의
호소나 막당성에 비해 손색이 없음을 자위한다.

바램이어 단결로 뭉쳐 백이나 천도 하나가되고 바램이어 따뜻한
동포애와 사랑함으로 서로 감싸며 돌보고 바램이어 검소와 절약으로
내일을 설계하며 바램이어 담대한 마음에 용서와 관용을 상봉하며
바램이어 시기함과 비판함을 칭찬으로 드리는 슬기로운 지혜와
아름다움이야말로 1980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쓴이 - 씨니 김 -

원고모집

한인회 편집실에서는 교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아래와 같은 글들을 기다립니다.

- 1. 論壇 (논단)
- 1. 特輯 (특집)
- 1. 특기 (特記)
- 1. 수필, 콩트, 기행문, 잡기, 만화
- 1. 詩苑 (시원)
- 1. 생애 정보 및 상식
- 1. 이웃 소식
- 1. 기타

투고詩 "바 위"

가난을 알아야 하는
여기 찬 할나를
못 견디게 도리질 하는 여정 속에
바위는
나그네 되어 왔다.

여기
지표 위에
전설은 꿈틀거리고 ...

순간을 이어 받은
수다한 인간의 손질속에
분노처럼 뭉쳐진 대화는

또
내일을 가고 있다



환송

지난 77년 7월 부터 78년 3월 까지 한인회 봉사 요원으로 그리고 78년 3월 부터 현재까지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STATE WASHINGTON (전화 764-4310) 에서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몸과 정성을 기울여 주고 하시는 GINA SHIN (지나-신) 씨께서 가족들의 요청에 의하여 뉴욕으로 이사하게 되어 오는 3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가진자의 편에서 많은자의 편에서 영어가 서툰사람의 대변인으로서 그가 이 한인 사회에 기여한 공은 아노이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섬으 할은 겸할길 없으나 떠나는 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같이 있기를 빕니다.

순복음교회 창립 안내

교회 이름: **순복음 한인교회**

교회주소: 1632 Broadway Avenue
Seattle, Wa 98122
Tel: 838-5934 322-2273
927-5448

담임목사: 양 태 홍 목사
(서울 순복음중앙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시무)

예배시간: 주일오후 1시30분 (3월16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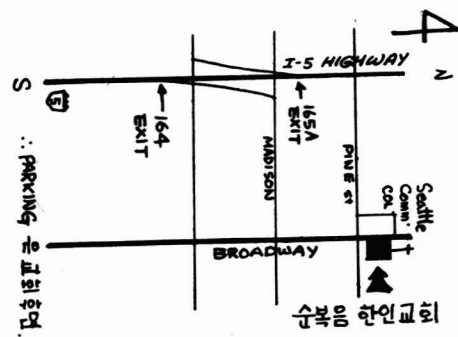
수요일오후 7시30분

금요일오후 7시30분 (구역예배)

순복음 한인교회 창립 준비 위원

이광운, 이희천, 전성균, 박준재, 최명환
채인숙, 김복순, 이순주, 이인희, 전광현
(무순)

교회약도



교회소식

워싱턴주 교역자 친목회에서는 지난 1/21/80 타코마 중앙교회 (정남식 목사) 에서 80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 하여 임원 개선 및 사업계획 등등의 하였습니다.

- 신 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장 정면발 목사 (씨애틀 한인 중앙 장노교회 244-1677)
- 부회장 김종원 목사 (씨애틀 연합 장리교회)
- 총무 김수영 목사 (타코마 한인 장노교회 474-1770)

부활절 연합축하 예비

씨애틀, 타코마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오는 4월 6일 새벽 6시에 AUBURN 에 있는 루터란 휴양관에서 씨애틀, 타코마 지역 교회 연합 축하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그날 예배는 각교회 성가대도 조직된 합동 성가대에서 "할렐루야"를 위시한 합창도 있겠으니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교회 목사님이나 한인회 사무실 (전화 767-7934)로 연락 바랍니다.

스포츠계 소식

워싱턴 팔프회 80년 정기 총회가 3월2일 제프슨 팍 골프 코스에서의 서포 오프닝 골프 대회 후에 개최 되었다. 챔피언에 고창열씨 메달리스트에 김일영씨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토의 되었고 금년도 회장에는 조영씨가 귀선 되었다.

동문회 소식

중대 동문회 창립 총회를 개최 하기 위해 동문의 많은 연락이 있을 바램 준비 위원의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367-3161 - 밤
622-0404 - 낮 또는 밤
623-4181 - 4182 - 4183 - 이카영 씨에게

"참된 삶을 위하여"

씨애틀 한인 안식일교회 담임목사 유 제상

은 누리에 새 옷을 갈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약동하며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새 봄을 맞으면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랫말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 2:11-12). 이런 음을 하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있으니 우리들도 밝게 웃으면서 새 봄의 설계를 구상해야겠습니다. 이제 지하에서 웃음을 잃었던 우리 민족에게 웃음을 찾아 웃으면서 살자고 계몽하시던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제창하신 "범거택, 빙거택, 방거택"란 세 마디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언제나 웃음을 먹고 활짝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해주고 또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삶이 흐릿할까고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하이-란 외마디로 학부가 시작되고 또 같은 인사들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디론가로 충충이 집주하는 군상들 속에 묻혀 사는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긴장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어 이쪽이 더 어리석음에도 모릅시다. 그래서 웃음은 점점 잃어 가는지도 모릅시다. 누구나 이인초기부터 당하는 언어의 장애, 취업 문제 등 광범한 난관에 몰려 삼키기때문에 우리 고교 사회에 정신질환에 걸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음을 보게됩니다. 학생에 있는 동양인 정신진료센터가 7개월 동안 치료한 148명의 환자들중 그의 33.7%인 50명이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중국과 일본인이 각각 23.6%인 35명, 비유럽인이 6.7%에 해당하는 10명, 월남인이 6%인 9명, 사모아인이 2.7%인 4명, 그리고 기타가 3.3%인 5명으로 나타내서 우리 고교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압박과(정신적) 부담아래서 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 정신 환자들의 40%가 이민생활의 부적응과 가정생활의 불화로 인해, 그리고 다른 30%은 조울증, 또 다른 20%은 광박증·공포증 및 변민동이며 나머지 10%는 성격장애 (신경질적성격)로 인해 병이 났다고 지난 1978년 3월13일자 한국일보 미주판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 생각해 해 주었다고 어김나. 비록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치더라도 우리 심망하지도 낙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미래를 향한 도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욕망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사람이 살아 있음의 구체적인 한 증거요, 인간존재의 불가결한 양상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고전 13:13 새번역).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서 참 생명의 이유와 생존의 증거를 상실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철학자 케르트케 고트가 말한대로 "절망" 곧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 들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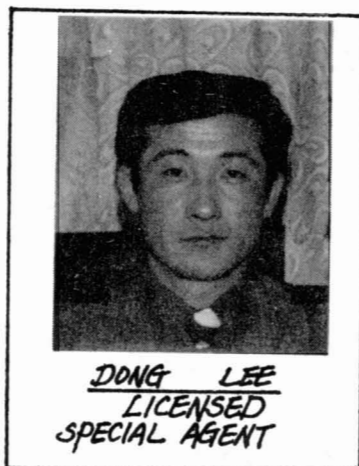
니다. 또한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은 그의 저서 "희망의신학"에서 절망은 죄라고 지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의 믿음은 우선(Prus)이고 희망은 수위(Primus)라고 했습니다. 참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의 신앙의 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보람과 희망을 갖고 살 것인가가 중요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 든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딤후 6:17)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광택하고 살벌한 싸움터로 화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둠과 희망을 가지고 비록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을 신실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부단히 명상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내일이 세상이 끝난다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한 진심되고 신념어린 본처럼 우리들도 살아야 합니다. 심리보다는 이념과 이상을, 권리보다는 의무를, 향락보다는 도덕을 우선적으로 바라며 추구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때 이 세상은 더 밝아 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길은 첫째로 나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저한 바람을 간직하는 진실된 신앙의 보이지 않는 힘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알고 감 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삼 필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영원한것 (롬8:24 참조), 결코 실패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될(시25:3, 롬5:5 참조)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삼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것의 해결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곧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히 11:1).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바를 가장 확실하게 이뤄주며, 우리의 희망의 원동력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희망보다 원대한 곳에, 보이는 모든것을 넘어서 보다 영원한것을 보게해 줍니다. 하나님의 품성하신 사람과 은총이 우리 동포 여러분 의 가정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희망(딤후1:7)이시요 복스런 희망 (딤후2:13)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기는 귀한 본들이 되시기를 원 합니다.

필자 소개 : 현:씨애틀 한인 안식일교회 담임
전:로 마틴다(남가주)교회 담임
:KLU 방송 "Korean Hour" 담당방송
:기독교중앙방송 "저녁은곳을
:한미어 방송시 단단 방송목사
:서울중앙방송 "구원의동행" 담당
:서울문화방송 "희망의길" 방송
:서울동부교회 담임목사



클어쥬 ... 먼저 대망의 80년대를 맞이하여 교포 여러분들의
기원위에 소원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쁘지만 하고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는 피로
하지만 한 이 미국 생활에서 생의 보람을 찾지 노력하지만
끝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한국을 유지하는 모든 상용대는 더욱 경제적으로 곤란과
파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생활 중
에서도 취직도 좋고, 월급지도 높은 여러가지의 예기치 못한
우발사건, 경제적 손실 등은 더욱 더 꼬리를 물고 해가 갈수록
빈번해 갑니다. 계획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하지만 중도에서 그치고 그만 나와
살의에 빠집니다. 교포여러분! ... 이제 실망을 거듭하실 때는 아쉽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NEW YORK LIFE는 특히 이 미국 생활에서 의욕이 못한 교포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자섭니다. 돈을 만족하게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의 보장은
결코 어느 누구도 자섭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좋은 자동차와 주택보다 먼저
인슈어런스입니다. 인슈어런스는 생명보험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숫자가 한국에서의
방식에서 초래된 손해입니다. 전 미국 최대의 인슈어런스 회사 중 가장 많은 자본금, 특히 금번
와싱턴 주 정부에서 발표한 최고의 가업자를 자랑하는 NEW YORK LIFE 회사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해도 가입할 때는 AGENT(생부
종단)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AGENT 선택에 따라 가입자의 이익과 손해가 결정됩니다.
본인은 시애틀, 라코마 지역에서 8년간 이상 거주하면서 교포여러분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뉴욕
인슈어런스는 바로 BANK 이면서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와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교포여러분의
개인과 가족 모든 재산을 보호합니다. 미국 생활에서의 빠른 성공은 좋은 인슈어런스 회사의
성실한 AGENT를 선택함과 동시에 TAX를 잘 활용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이 생의 두 가지에 대하여, 더욱이 인어의 장벽과 불변으로 이해
하지 못하였던 모든 상황에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으며 해결책과 내일의 안정을 마련
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감사합니다. 동 리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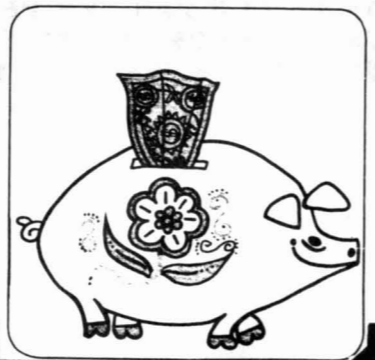
DONG LEE
LICENSED
SPECIAL AGENT

보험 종류:

- | | | |
|-------------|---------------------|------------|
| 1. 손 재배. | 5. 교육 보험. | 9. 은퇴보험 |
| 2. 재테크 보험. | 6. 세금공제 보험 | 10. 연금 |
| 3. 건강 보험 | 7. 선제 건강 및
생명보험. | 11. 생활기보형 |
| 4. 주택대금 보험. | 8. 상해 보험. | 12. 사업보험 |
| | | 13. 보일 전반. |

사무실 안내:

- 시애틀 622-8966
샌 프란시스코 854-3500
라코마 924-0350
자택 413-0425



한인회 소식

이 한민부총리 씨애틀 한인회관 건립기금 전달
씨애틀 워싱턴주 교포들을 위한 이 한민부총리 주최의 만찬회에서
지난 2월 25일 경제 기획원장관급 부총리 되시는 이 한민부총리께서
수행원 12명과 함께 씨애틀을 방문 하셨다. 본회의 씨애틀 방문은 2박
3일로 지난 26일과 27일로 예정되어 27일날 씨애틀을 떠나 귀국할 예정
이셨으나 하루 앞당겨 지난 26일 오후 8시 U. A. 기 편으로 떠나 셧다.
이번 14일간의 방미는 10일동안 뉴욕등지에서 열린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구, 뱅크 아메리카 등 미국 각계의 경제인들과의 회담으로 급속도로
방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국의 경제상을 소개하며 미국경제와의 깊은 신뢰
를 다짐하며 전모하는 세계의 경제동향과 미국과 한국과의 긴밀한 협
을 재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씀 하셨다.
특히 이번 씨애틀 방문은 그간 바쁜 일정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전 미주
교포들의 대표 지역인 씨애틀에서 모든 일정을 완만히 끝내고 귀국하기 전
에 어머모토 미국 생활에서 고생하시는 교포들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
하였다고 교포들을 치하 하셨다. 약 5분간의 인사말 뒤에 수행원,
경제 기획원, 비서실장 박 선배씨, 상공부 상영국장, 재무부 외환국장,
농림부장등 12명을 소개하셨으며 특히 이날 이 한민부총리의 여동생
특시자 전 한인회 회장이며 이사되는 한만철 박사님의 부인께서 참석
하시어 바쁜 일정중에도 형제지간의 재회를 가지 셧다.
귀국 당일 공항에서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금 일봉(\$7,000.00)을 한인
회장 정 철식씨에게 전달하시며 회장단 및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 하셨다.



기사 및 사진 제공
한인회 총무 이동규

뉴욕 역은 서두수 박사님의 서신
씨애틀의 원로이시며 U.W. 외 교수이셨던 서두수 박사님께서 지난
2월 뉴욕으로 떠나신 이후 한홍의 서신이 한인회장 정 철식 씨 앞으로
왔습니다. 뉴욕에 안주 하시면서 씨애틀 한인회의 고민 사업에 깊은
구려와 심원 보내주신데 대해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직장 생활
영어반 수강생 모집

이민 생활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가 최소한의 언어소통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구직 신청서 작성요령과 면접에서 필요한 간단한
영어, 직장을 찾아내는 방법등, 시장 또는 은행에 갔을 때 필요한
간단한 영어등 ABCD 부터 시작되는 영어공부가 아니고 임기위부의
꼭 필요한 영어만을 추면서 교육시립(응모 선착순 20명)

구인

A.K. Construction & Maintenance Co. 에서 사람을 구 합니다.
자격 : 영문 학자, 영문 작성 및 회화에 능통한 자
월급 : \$800.00
연락처 : 767-3360, 762-4792 조 진 환

박 암 선생님 편집실에 구려

한인회보가 고민들의 우편 함에 들어 갈때까지 눈코 뜰새없이 바쁜
편집실은 봉사요원들만의 손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한인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의 노고 또한 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직장에서 시달림으로
받날 계까지 한인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임원들에게 몇몇 교포분들의
구려는 큰 힘을 얻게 합니다. 지난 회보에는 박 암 선생님께서 한인회
회장 및 임원진들이 받날 계 수고하시는 모습에 관식비로 20불을 보내
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신호범씨 전 한인회장께서는 에서 역사학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 또 한번의 한인박사가 탄생되어 고민들의 자랑으로
어깁니다.

취급업무

중소기업 장부정리

일반 인컴 택스

각종 세무 상담

은행 용자 알선

공증 업무 취급

사업 상담

퇴직 연금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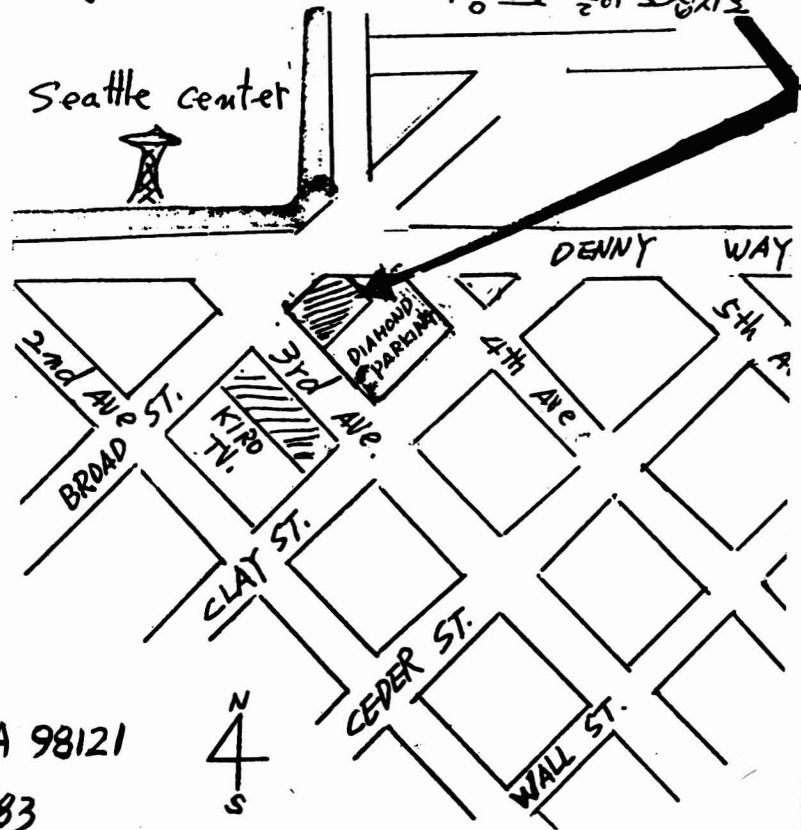
기밀 절대 보장

계리사 이주영

주소: 307 Broad St Seattle WA 98121

전화: 623-4181, 4182, 4183

<약도>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1725 S.W. Roxbury St. Seattle, Wa 98106
767-793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39

NON-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 AMERICAN COMMUNITY SINCE 1967

0505 000002683
MAN SOP MR & MRS HA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